

IBKS Spot Comment

건설/부동산

조정현

02) 6915-5660

controlh@ibks.com

[건설/부동산]

HDC현대산업개발 1심 패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1심 패소, 하지만 실질 제재는 유예 상태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후 30일 이내까지는 실제 제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해당 사고를 근거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고, 동사는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사안으로 별도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으나, 이는 과징금 4억 원으로 대체되면서 실질적인 영업 제한은 없었다.

경쟁사 사례: 집행정지로 실질 피해 최소화

비슷한 전례로 경쟁사는 2023년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8개월), 서울시(2개월), LH(12개월) 등으로부터 합산 22개월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경쟁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사고의 심각성과 제재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업활동에는 제약이 없었고 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법적 다툼이 동반되며,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보통 1심 결과 이후 항소심, 대법원까지 수년간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투자 판단: 단기 영향 제한적, 중장기 법적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동사의 1심 패소는 주가나 영업에 미치는 단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제재 효력은 집행정지 인용 및 항소심 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과 정부의 제재 기조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